

양이온 교환을 통한 메조다공성  
알루미노실리케이트의 수분 흡착 특성 조절

이은경<sup>1,2</sup>, 조강희<sup>1</sup>, 김상겸<sup>1,3</sup>, 임종성<sup>2</sup>, 김종남<sup>1,†</sup>

<sup>1</sup>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; <sup>2</sup>서강대학교; <sup>3</sup>충남대학교

(jnkim@kier.re.kr<sup>†</sup>)

저온열원 구동 수분 흡착식 냉방 시스템에 사용되는 흡착제는 상대습도( $P/P_0$ ) 0.1~0.3에서 수분의 흡-탈착량 차가 큰 것이 좋다. 지금까지 제조단가가 낮은 실리카겔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. 제올라이트 A나 X는  $0.3 \text{ g g}^{-1}$  정도의 높은 수분 흡착량을 보이나 수분 흡착력이 커 상대습도 0.1 이하에서 대부분 흡착이 진행되어 흡탈착량 차가 매우 적고, 실리카겔은 이 구간에서  $0.1 \text{ g g}^{-1}$  정도의 흡탈착량 차를 보인다. 본 연구에서는 상대습도 0.1~0.3 사이에서 기존의 수분 흡착제들보다 높은 수분 흡착성을 보이는 새로운 흡착제를 개발하고자 제올라이트와 메조다공성 알루미노실리케이트의 표면 성질을 조절하였다. 염기도가 다른 여러 양이온 ( $\text{Na}^+$ ,  $\text{NH}_4^+$ ,  $(\text{CH}_3)_4\text{N}^+$ )들로 교환하고 각각의 시료들에 대해  $35^\circ\text{C}$ 에서 수분 흡착 등온선을 측정하였다. 작은 기공을 갖는 제올라이트의 경우 분자 크기가 큰 양이온으로 교환하면 수분 흡착량이 크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. 큰 기공을 갖는 메조다공성 알루미노실리케이트의 경우 양이온 종류에 따라 흡착 용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흡착이 주로 일어나는 상대습도 구간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